

학생과 경영자, 나는 평생 두 얼굴의 사나이

김태웅



“얼마 전에는 동창들과 롯데월드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시험 끝난 기념으로 청룡열차보다 더 무서운 놀이기구도 타봤지요.(웃음)”

직원 30여 명을 이끌고 500여 종의 전문서적을 내놓은 출판사 최고경영자의 소풍답이라니, 낯설기 짝이 없다. 낯설, 놀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킬 박사만 두 얼굴의 사나이란 법 있나. 동양문고 김태웅(49) 대표는 2004년 한 해 동안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어 불철주야 활약했다. 낮에는 고3 입시생, 밤에는 출판사 대표로 복장을 바꿔 입었던 사연은 《고3 CEO》란 책으로도 알려진 상태다.

“왜 다시 교복을 입었나?”라는 질문의 대답은 어린 시절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아버지를 여윈 후 배고픔과 가난에 힘겨워하던 때, 구두담이, 신문팔이, 껌팔이, 토스트 장사를 하며 돈을 벌던 시절이다.

“중학교 3년 내내 반장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 어느 순간 불운이 찾아왔어요. 구두담이를 하면 자신도 모르게 거친 면이 생기거든요. 세상의 햇불이 되자는 의미로 만든 햇불클럽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 게 문제라면 문제였죠.”

후배들이 교내 폭력 사건에 연루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김 대표는 엉뚱하게 배후 조종자로 누명을 썼고 경찰에 끌려갔다. 학교는 곧 제적처분을 내렸다. 미션스쿨에다 유난히 인성교육을 강조했던 학교의 교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1976년 초봄을 ‘실어증의 계절’로 기억하는 김 대표는 그 시절만 생각하면 지금

도 눈물을 글썽인다고 고백한다.

군 제대 후 우여곡절 끝에 우유 대리점 운영자가 된 김 대표가 본격적으로 책과 인연을 맺은 1980년대 말. 고려원 입출고 담당 창고관리 임시직원으로 일하면서부터다. 학업을 잊지 못한 상처를 안고 있던 김 대표는 “책을 무진장 많이 읽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떨 듯이 기뻐다”고 말한다. 취직 후 한동안은 업무 이후 창고에서 책을 읽다가 그곳에 갇혀 밤을 지샌 날도 많았다.

“사람들 출근 전에 화장실청소, 바닥청소 등을 해두는 게 제겐 큰 행복이었어요. 정직원이 되어서 당직을 서보는 게 당시 꿈이었구요. 그러다 졸업장 사본과 신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땐 참 막막하더군요.”

‘학력 콤플렉스’를 되뇌며 자기 한탄만 하고 있을 순 없었다. 정채되고 싶지 않아 부지런을 떨었다.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보라며 새벽잠을 떨쳐내고 영어학원에 다녔다. 영업사원 시절 5분 미팅을 위해 1시간 동안 상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습관적으로 책을 펼쳤다.

“전 지금도 영업하는 후배들이 함께 물려다니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출장 다니며 술 마시고 하소연만 늘어놓는 것보단 인문, 철학서 한 번 더 펼쳐보고 자신들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걸 그 시절에 알았거든요.”

영업사원에서 1990년대 초 어학서 전문출판 동양문고의 최고경영자가 되기까지 김 대표는 출판계에 회자되는 특별한 일화도 남겼다. 3,000만 원에 인수할 수 있었던 회사를 6,000만 원에 사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2,500만 원에도 인수할 수 있었지만 갑절이 넘는 6,000만 원을 굳이 고집한 이유는 갑절의 차액인 3,000만 원이란 부담을 일부러 안고 가려는 의도였다.

“장밋빛 낙관보다 부담감이라는 ‘적’을 일부러 세워 놓고 싶었어요. 우선 3천만원을 지불하고 3천만원은 출판사를 운영하며 1년에 걸쳐 주겠다고 단서를 달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저와 동양문고에 확신을 가지게 된 분들이 많았죠. 역량 있는 영업사원, 유명 어학서 강사진 등 제 신념을 믿은 분들까지 덩으로 얻게 됐지요.”

김 대표는 그동안 몸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뭐든지 다 했다고 말한다. 워낙 사람을 좋아해 상대에게 애정을 가감 없이 표했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했다. ‘동양문고 최고경영자’란 직함은 학벌도, 인맥도, 자본도 없었던 맨발의 청년이 그야말로 땀으로 얻은 이름이었다.

“그렇지만 언제부터가 한계를 느꼈어요. 책 만드는 이에

서 벗어나 책 읽는 사람의 눈을 갖고 현재를 바라보고 싶었죠. 특히 '배움'은 지식 자체를 전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사람, 그들의 다양한 소리, 다양한 이상 등을 함께 만나는 기회까지 주잖아요.”

결국 김 대표는 2004년 3월 옛적 다니다 만 모교였던 삼육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입학했다. 어딜 봐도 50대 중년 아저씨의 외모였지만 마음만은 고3 입시생 김태웅이었다.

중년 신사가 교복을 입고 고등학교에 출입을 하니 학교 주변은 금세 소란스러워졌다. 김 대표를 둘러싸고 별스런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아내와 함께 교복을 맞추러 가서는 “자녀들 교복을 대신 맞추러 왔나?”는 질문도 받았고, 교복을 입은 채 허겁지겁 현금카드를 다루다가 청원경찰에게 수상한 사람으로 지목된 일도 있었다. “큰형님 야자해요!” 소리에 당황하다가 ‘야자’가 야간 자율학습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당황한 기억부터 어린 동창들과의 추억담도 하나둘씩 쌓여갔다. 일 년 동안 참 많은 걸 얻었다. 동창들에게 ‘큰형님’이란 애칭도 선물받았고,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는 행운도 주어졌다.

“2시간 공부 후 최소 2시간 복습 원칙을 지켜나가며 열심히 공부했죠. 또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로 호호하기 위해 무척 노력했어요. 덕분에 젊은이들의 사고를 알게 되고 그들의 세계를 빠르게 알아내는 감각도 생겼죠. 이젠 ‘싸이질’, ‘버디버디’도 합니다. 책의 핵심 소비자는 바로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들을 알고 이해하는 눈을 길렀으니 얼마나 귀한 걸 얻은 겁니까.”

사실 두 얼굴의 사나이로 사는 데 공부야 문제는 아니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재입학’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장모까지도 김 대표를 대학원 졸업자로 알고 있었으니 그간의 사연들을 고백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못해 고역이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은 불운 탓에 학업을 채 잊지 못했던 청년 김태웅의 손을

잡아줬고, 김 대표는 그 앞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함께 용기를 얻었다.

그렇다면 구두담이, 제적생 청소년이 출판사 CEO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된 사연을 대중 앞에 내놓은 이유는? 김 대표는 “젊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스타가 되겠다는 친구들이 무척 많은 세상이지요. 조명의 밝은 삶만 꿈꾸면 숨겨진 공은 누가 쌓겠어요. 택시운전, 농사 이런 일들을 못 배운 사람들이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낸 이유도 밑바닥 삶에 대해 간접 체험을 해보라는 일종의 권유이지요.”

완성된 인간은 없다. 끊임없이 완성해 나가려는 인간의 노력만 있을 뿐. 과정에서 흘린 땀을 귀하게 여긴다는 김 대표는 2005년 현재 이 시간에도 여전히 두 얼굴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 해외무대를 꿈꾸는 출판사 경영자의 얼굴, 캠퍼스를 누비는 대학생의 얼굴로 바쁘게 살고 있다. 이미 《고구마의 그림일기》, 《가장 쉬운 중국어 첫걸음》 등이 대만, 홍콩과 판권 계약을 체결한 상태니 경영자로서의 임무는 큰 탈 없이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밖에서 판로를 개척했으니 학교에 나가서는 이 세계를 공략할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다.

“새해 계획표 안에 재즈댄스, 영어회화를 배우고 싶다고 적어뒀어요. 벌써 영어회화 학원은 등록하고 온 상태입니다. 기억력이 나쁘니 머리는 고생하겠지요. 그래도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하고 꿈꾸던 길을 걸으면 어느새 힘든 것도 잊을 겁니다.”

취재 | 김청연 기자·사진 | 박신우 기자



김태웅 대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로 다시 돌아가며 겪었던 이야기를 《고3 CEO》란 책으로 공개했다.

김태웅씨에게 ‘큰형님’이란 애칭을 붙여준 삼육고등학교 학생들.
김태웅씨는 ‘cafe.daum.net/go3ceo(고3 ceo의 청소년 세상)’ 라는 커뮤니티에서 이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 daum 카페 ‘고3 ceo의 청소년 세상’)